

公州中壯里施釉土器壺出土

百濟石室古墳

金永培

I 古墳의 位置와 發見經緯

이 石室古墳은 公州郡 鷄龍面 中壯里 山一九一三 千長權氏 所有의 林野에 所在한 것인데 一九七五年 四月十日 千長權氏의 父親墓에 莎草 作業을 하는데 墓의 西側 稜線에서 人夫 洪晶善 張順鏞 李在完氏 等이 採土를 하다가 우연히 板石을 發見하고 蓋石一部를 除去하고 보니 石室 이 나타났으며, 石室北側에서 施釉壺一點과 南側에서 三足土器 三點을 發見하여 即日 公州郡廳에 申告하고 出土遺物은 公州博物館에 保管하게 된 것이다.

古墳의 位置를 보면 鷄龍山 水晶峯에서 西南으로 뻗은 山脈이 連續되 다가 古墳이 位置한 稜線地點에서는 비교적 平坦한 地形을 이루며 小地名(오미)라고 부르는 곳인데 西쪽으로 뻗은 稜線의 中腹에 南向하여 石室을 構築하였으며 이 附近一帶를 踏査한 결과 여러基의 古墳이 遺存되고 있어서 注目할 곳이라 하겠다. 申告人들을 博物館에서 對面하고 即時 遺構調査를 하여야겠으니 더이상 손을 대지 못하도록 부탁을 하고 現場調査를 實施하였으며 그 狀況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II 古墳의 內部構造

이 古墳은 西南으로 走行한 稜線에 南北으로 장축을 두고 構築하였는데 地表에서 蓋石까지의 土層을 一三cm에 不過한 程度로 封土가 流失되

었으며 玄室을 形成한 石室은 最下段에는 前面의 平坦한 大形의 塊石을 一列로 놓고 그 위에서 부터는 小形의 雜石으로 築壁을 하여 東西北三面壁을 上部로 가면서 內部로 傾築하여 天井蓋石을 덮는데 空間의 넓이를 좁히었으므로 壁面이 垂直을 이루지 못하고 下廣上狹의 形態를 이루고 있으나 이것은 百濟古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맞조림 天井式이 아닌 것을 一見 判斷할 수가 있으며 天井을 五枚의 自然板石으로 덮고 床面에는 不規則한 小割石으로 敷石을 하고 南壁은 一枚의 門扉石으로 閉鎖를 하였는데 門扉石의 外面에는 石扉를 保護하기 爲한 護石이 自然雜石으로 築造되어 있으며 이 石室古墳은 百濟古墳中에서도 古類에 屬하는 것으로 그 實測値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東西壁의 길이 二四〇cm

床面の 너비 一〇〇cm

東壁의 높이 九五cm

西壁의 높이 一〇五cm

石扉의 높이 一〇〇cm

天井幅 六〇cm

III 出土遺物

一、施釉壺

이 施釉壺는 石室의 北側 床面에서 出土된 것으로 内外 全面에 施釉를 하였는데 酸化部分이 많으나 어느 程度 釉藥이 남아 있어서 參考에 足하며 綠色위에 黃褐色이 鮮明하게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서 二採에 屬하는 것으로 史料되며 公州 附近에서는 이것이 처음으로 發見되어 所重한 資料라 하겠다.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高 一六・七cm

口徑 一二・五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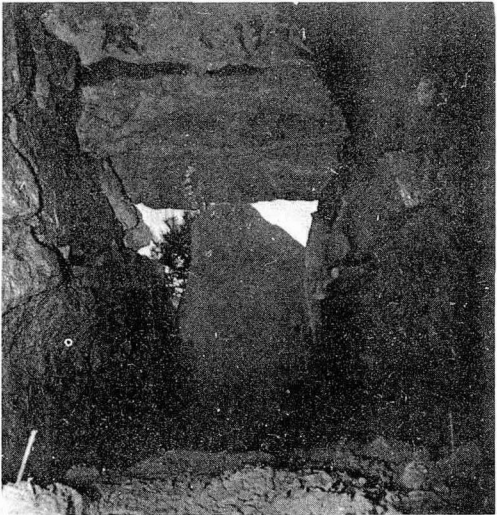
胴徑 一八・八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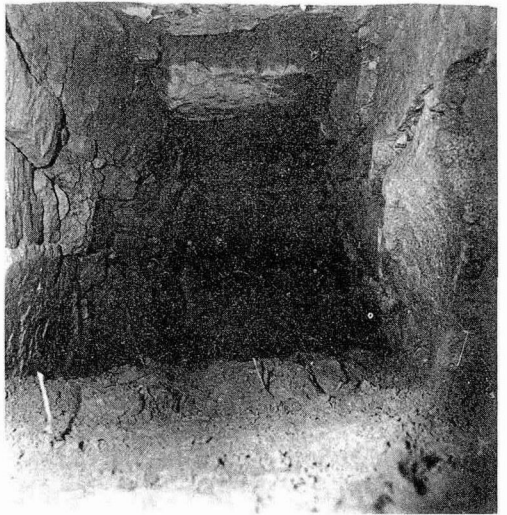
門 扉 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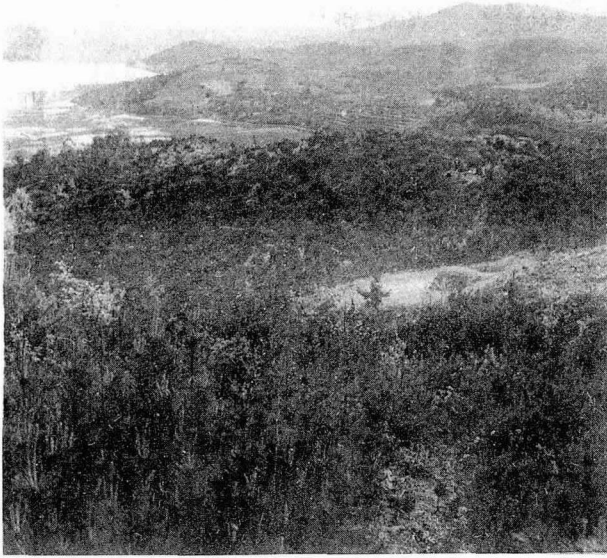
門 扉 護 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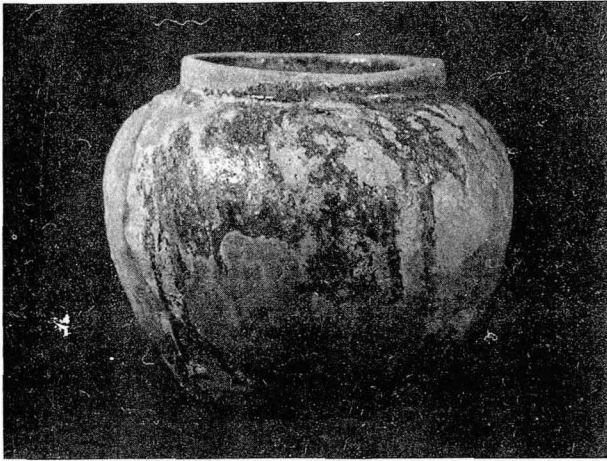
玄 室 南 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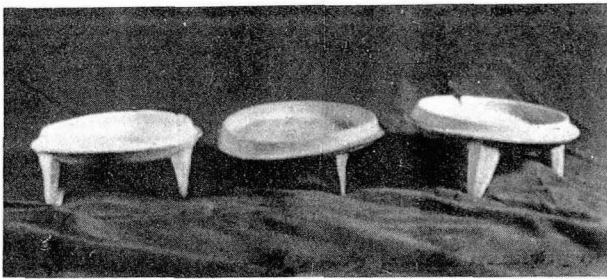
玄 室 北 壁



古墳遠景



施釉壺



三足土器

二、三足土器

이 三足土器는 玄室 南側床面에서 出土된 것으로 器蓋는 없고 器體만 이 三點 發見되었으며, 足部는 예리한 칼로 六角내지 七角으로 다듬어서 경쾌한 감을 나타내게 하였으며 其中 一個는 灰色이고 다른 二個는 灰白色을 띠고 있다.

그, 灰色器

高 五 cm

口徑 一〇五 cm

ㄷ, 灰白色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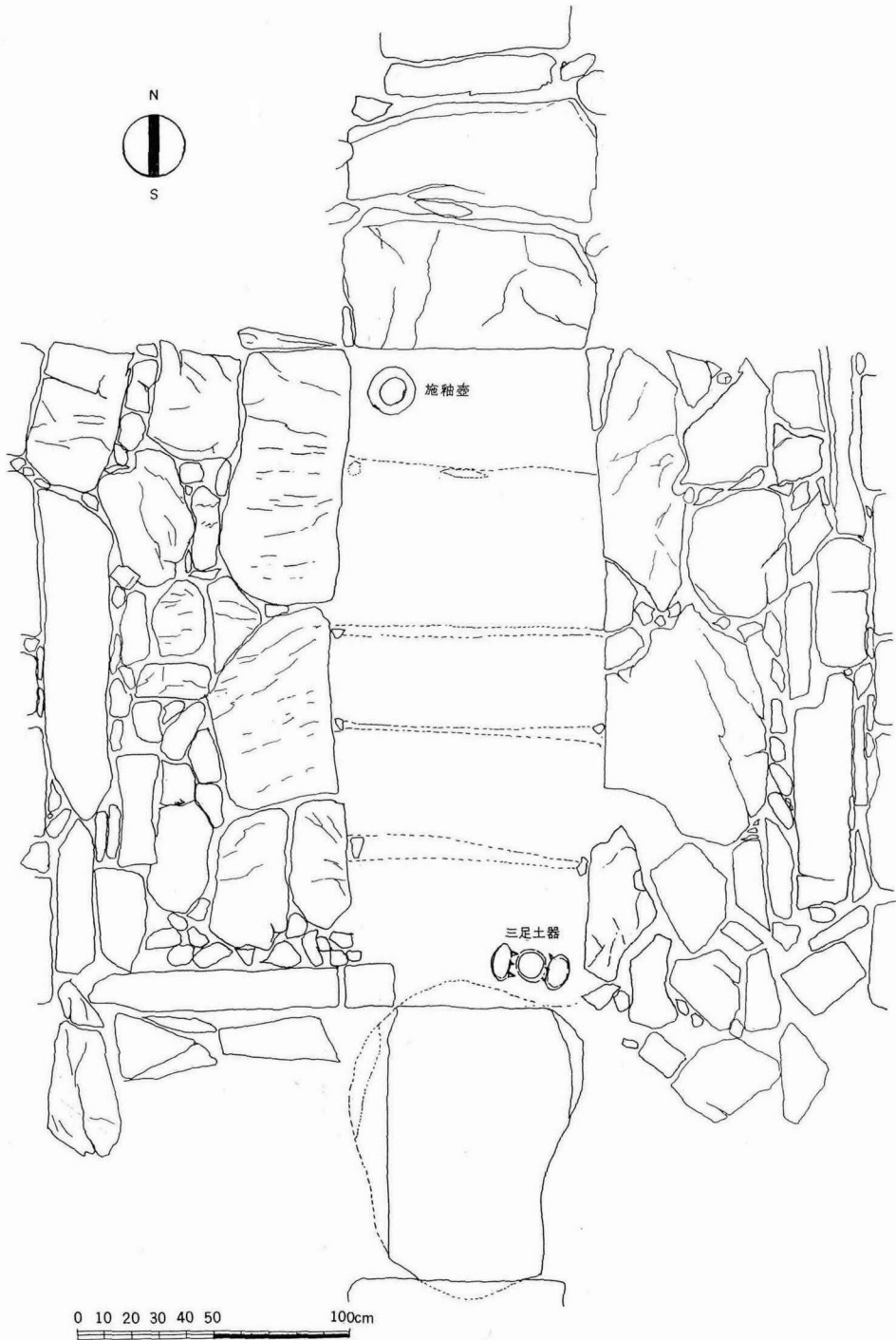
高 五·六 cm

口徑 一〇·五 cm

三、木棺用鐵釘

石室床面 到處에서 鐵製木棺釘이 一五個程度 수습되었는데 부식이 심하여 原狀과 약이 어려운 程度이나 이 古墳에도 木棺을 使用한 것이 判知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公州 中壯里 施釉土器壺出土 百濟石室墳